2026년 5월 26일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 투자전략팀

KIWOOM WEEKLY

지수 모멘텀과 수급 변동성의 공존 구간

이번 주 코스피는 1) 미-이란의 휴전안 공식 발표 여부, 2) 미국 4월 PCE, 5월 소비자신뢰지수 등 주요 경제지표, 3) 뉴욕 연은 총재 등 주요 연준 인사 발언, 4) 델, HP 등 미국 테크주 실적, 5)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 출시 등에 영향을 받으면서 8,000pt 돌파를 시도할 전망(주간 코스피 예상 레인지 7,600~8,200pt).

5월에도 여러 차례 노이즈를 만들었던 미-이란 협상은 현재 진행형인 가운데, 주말 중 협상 진전 소식이 종전 기대감을 재차 높이고 있는 상황. 물론 "협상 진전 -〉 후퇴 -〉 진전"의 경로를 답습할 수 있기는 함. 하지만 "군사작전 재개, 호르무즈 해협 재봉쇄"와 같은 강대강 구도가 아닌 "외교적 협상을 통한 해빙 모드" 쪽으로 베이스 시나리오를 유지하는 것이 적절. 국내 증시에서는 27일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단일 종목 레버리지 출시가 단기 메인 이벤트. 수급 이슈이기에, 이들 주식을 포함한 전반적인 증시 방향성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겠지만, 출시 이후 자금 쏠림 여파로 장 마감 시간대에 근접할수록 수급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다는 점은 염두에 둘 필요.

| Strategist 한지영
hedge0301@kiwoom.com

| RA 유지윤
jiyun.yoo@kiwoom.com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5월 22일 현재 보고서에 언급된 종목들의 발행주식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동 자료에 게시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 동 자료의 금융투자분석사는 자료 작성일 현재 동 자료상에 언급된 기업들의 금융투자상품 및 권리를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고지사항

-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고, 통지 없이 의견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조사분석자료는 유가증권 투자를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당사 고객에게 배포되는 참고자료로서, 유가증권의 종류, 종목, 매매의 구분과 방법 등에 관한 의사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체의 투자행위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 될 수 없습니다.
- 본 조사 분석자료를 무단으로 인용, 복제, 전시, 배포, 전송, 편집, 번역, 출판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1. 지난 주 주식시장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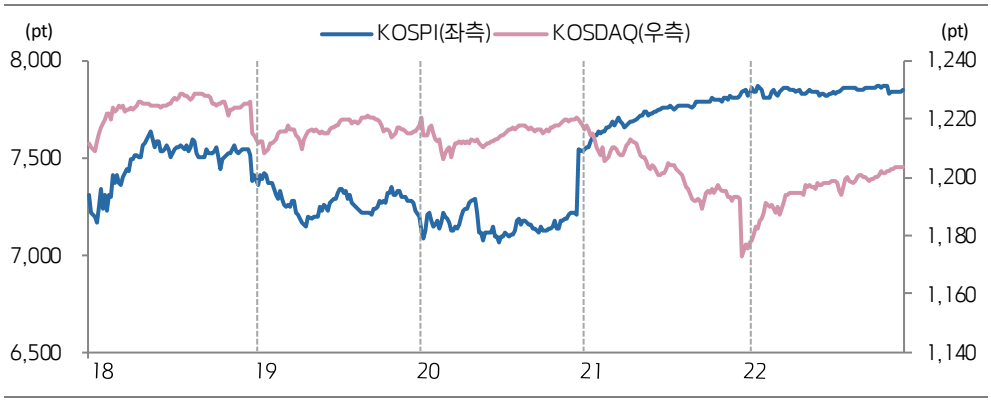
국내 증시는 미 국채금리 급등과 고유가·인플레이션 우려 속 외국인 매도세가 확대되며 극심한 변동성 장세를 보였으나, 주 후반 삼성전자 노사 협상 타결과 엔비디아 실적 호조, 국민성장펀드 흥행 등이 투자심리를 개선시키며 상승 마감(KOSPI +4.73%, KOSDAQ +2.77%).

코스피는 주 초반 미국 장기금리 급등과 중동 지정학적 불안에 따른 국제유가 상승이 겹치며 급락. 여기에 외국인의 강한 매도세와 삼성전자 노사 협상 결렬에 따른 총파업 우려까지 더해지며 장중 4% 넘게 하락했고, 매도 사이드카까지 발동되며 투자심리 위축. 다만 낙폭 확대 과정에서 개인과 기관의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며 하방을 지지했고, 주 후반 들어 분위기 급반전. 삼성전자 노사가 총파업 직전 잠정 합의에 도달한 가운데, 엔비디아가 시장 예상치를 웃도는 실적과 양호한 가이던스를 발표하며 AI 반도체 수요 기대 재부각. 여기에 미·이란 협상 기대에 따른 국제유가와 미국 금리 안정까지 더해지며 반도체·AI 관련주 중심의 반등세 출현. 코스피와 코스닥 양 시장에서는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됐고, 특히 코스닥은 국민성장펀드 흥행에 따른 성장주 자금 유입 기대까지 확대되며 바이오·2차전지·AI 관련주 중심으로 상승폭 확대.

대외적으로는 미국 장기 국채금리 급등이 주 초반 국내 증시 급락의 핵심 요인으로 작용. 미국 10년물 국채금리가 4.5%를 돌파하고 30년물 금리도 금융위기 이후 최고 수준까지 상승하면서 위험자산 회피 심리가 확대됐고, 원·달러 환율 역시 1,500원대를 웃돌며 외국인 매도세를 자극. 반면 주 후반에는 엔비디아가 시장 예상치를 웃도는 실적과 양호한 가이던스를 발표하며 AI 수요 기대를 재차 부각. 동시에 트럼프 대통령의 미·이란 협상 관련 발언 이후 국제유가와 미국 금리가 안정세를 보이자 미국 증시가 반등했고, 이러한 흐름이 국내 반도체·AI 관련주 투자심리 회복으로 이어진 모습.

업종별로 보험(+10.38%), 전기/전자(+7.28%), 제조(+5.27%), 금융(+4.72%)이 강세를 보인 가운데 섬유/의류(-5.9%), 종이/목재(-3.86%), 오락/문화(-3.7%), 기계/장비(-3.43%), 부동산(-2.25%)은 부진한 흐름. 한편, 외국인(-14조 4,477원)은 기계/장비(-1,657억원), IT 서비스(-645억원), 보험(-493억원), 일반 서비스(-493억원)순으로 순매도, 기관(+6조 3,140억원)은 전기/전자(+56,122억원), 제조(+54,296억원), 금융(+8,737억원)순으로 순매수.

KOSPI, KOSDAQ 주중 차트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이번 주 주요 경제지표 발표 일정

		국가	경제지표	대상	전망치	이전치
5 월 25 일	월	휴장	**한국(석가탄신일), 미국(현충일)**			
5 월 26 일	화	미국	**컨퍼런스보드 소비자신뢰지수**	5 월	92.5	92.8
			댈러스 연준 제조업 활동 지수	5 월	-	-2.3
5 월 27 일	수	미국	리치몬드 연방 제조업지수	5 월	-	3
5 월 28 일	목	한국	**경제성장률 (QoQ, 잠정치)**	1 분기	2.0%	0.5%(2.0%)
		미국	**PCE 물가지수 (MoM)**	4 월	0.5%	0.7%
			PCE 물가지수 (YoY)	4 월	3.9%	3.5%
			PCE 근원 물가지수 (MoM)	4 월	0.3%	0.3%
			PCE 근원 물가지수 (YoY)	4 월	3.3%	3.2%
			개인 소득 (MoM)	4 월	0.4%	0.6%
			개인 소비지출 (MoM)	4 월	0.5%	0.9%
			내구재 주문 (MoM)	4 월	2.5%	0.8%
			신규주택매매 (MoM)	4 월	-	7.4%
		회의	**금융통화위원회**	5 월	2.50%	2.50%
		실적	**세일즈포스**			
		발언	**뉴욕 연은 총재**			
5 월 29 일	금	한국	**산업생산 (YoY)**	4 월	-	3.6%
		일본	실업률	4 월	2.7%	2.7%
			도쿄 CPI (YoY)	5 월	1.6%	1.5%
			도쿄 근원 CPI (YoY)	5 월	1.5%	1.5%
		독일	CPI (YoY, 잠정치)	5 월	-	2.9%
		실적	**코스트코 홀세일, 델 테크놀로지스**			

출처: Bloomberg,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2. 한국 증시 전망

이번 주 코스피는 1) 미-이란의 휴전안 공식 발표 여부, 2) 미국 4월 PCE, 5월 소비자신뢰지수 등 주요 경제지표, 3) 뉴욕 연은 총재 등 주요 연준 인사 발언, 4) 델, HP 등 미국 테크주 실적, 5) 삼성전자, SK하이닉스 2배 레버리지 ETF 출시 등에 영향을 받으면서 8,000pt 돌파를 시도할 전망(주간 코스피 예상 레인지 7,600~8,200pt).

22일(금) 미국 증시는 5월 미시간대 기대인플레이션 상승(4.8% vs 컨센 4.5%), 케빈 워시 신임 연준 의장의 물가 안정 의지 강화 발언에도, 미-이란 종전 합의 기대감 속 AI용 CPU, PC 수요 호조 전망에 따른 AMD(+4.0%), HP(+15.2%) 등 테크주 강세에 힘입어 소폭 상승 마감(다우 +0.6%, S&P500 +0.4%, 나스닥 +0.2%).

5월에도 여러 차례 노이즈를 만들었던 미-이란 협상은 현재 진행형인 가운데, 주말 중 협상 진전 소식이 종전 기대감을 재차 높이고 있는 상황. 주요 외신에 의하면, 미국과 이란은 60일 휴전 연장을 위한 MOU 체결을 논의하고 있으며, 해당 MOU 내에는 이란의 우라늄 농축 중단, 미국의 대이란 제재 해제, 호르무즈 해협 개방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짐.

트럼프도 이번 협상이 건설적이었고, 공식 발표가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으며, 이란도 서명이 임박하지 않았지만 상당부분 합의에 도달했다는 입장을 표명. 이 덕분에 전일 한국과 미국 증시가 휴장한 상황 속에서 WTI 급락(-6%대), 미 10년물 금리 4.5%대 하회, 일본 닛케이225(+2.9%)의 첫 65,000pt 돌파 등 위험선호심리가 강화된 모습.

물론 이전 몇 차례 경험했듯이, "협상 진전 -> 후퇴 -> 진전"의 경로를 답습할 수 있기는 함. 하지만 "군사작전 재개, 호르무즈 해협 재봉쇄"와 같은 강대강 구도가 아닌 "외교적 협상을 통한 해빙 모드" 쪽으로 베이스 시나리오를 유지하는 것이 적절.

이번주 매크로 측면에서는 연준 위원 발언, 미국 5월 소비자신뢰지수 등이 예정되어 있으나, 미국 4월 PCE 물가에 대한 관심도가 더 높을 전망. 5월 중 증시 조정을 유발했던 것은 4월 CPI, PPI 등 잇따른 인플레이션 쇼크였기 때문. 케빈 워시 의장이 절사평균 CPI 등 여타 대안 인플레이션 지표를 고려하고 있으나, 여전히 연준 대부분 위원들은 기존 인플레이션 지표를 주요 정책 고려 수단으로 삼고 있다는 점도 4월 PCE에 대한 이벤트 민감도를 높이는 요인.

현재 헤드라인과 코어 PCE의 컨센서스는 각각 3.9%(YoY vs 3월 3.5%), 3.3%(YoY vs 3월 3.2%)로 지난달보다 높게 나올 것으로 형성. 이번에도 지난 CPI, PPI처럼 컨센을 상회하는 쇼크가 나올 시 증시는 또 한 차례 조정 압력을 받을 소지가 있기는 함. 하지만 인플레이션 불확실성, 연준의 긴축 리스크를 촉발한 미-이란 전쟁이 종전 국면에 진입한 점을 고려 시, 이번 4월 PCE 물가는 증시에 중립 수준의 이벤트로 귀결될 것으로 판단.

주식시장 내에서는 미국 델, HP 등 IT 하드웨어 업체의 실적이 관건. 지난 금요일 이들 주식 모두 주가가 15% 넘게 폭등했음을 감안 시, 이번 분기 실적 기대감이 주가에 선반영된 측면이 있음. 따라서 분기 실적 그 자체보다는 메모리 가격 급등 국면에서의 수익성 방어 여부, 컨퍼런스콜을 통한 AI용 PC 교체 사이클 내러티브 강화 여부 등이 중요할 전망. 이들 실적 결과는 PC 등 세트 수요를 포함한 AI 산업 전반의 수요 전망, 메모리 업체들의 가격 결정력 등에 변화를 준다는 점에서 국내 주식시장에도 간과할 수 없는 이벤트가 될 것으로 예상.

국내 증시에서는 27일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단일 종목 레버리지(정방향 2배 14개, 역방향 2배 2개 등 총 16종)의 출시가 시장의 단기적인 메인 이벤트가 될 예정. 현재 출시 운용사 합산 ETF 신탁 원본액은 약 4조원 수준이며, 출시 이후 홍콩에 상장된 CSOP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레버리지 ETF에서의 수급 이동, 국내 투자자들의 신규 수급 유입 가능성 등을 고려 시, 운용 자산은 더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중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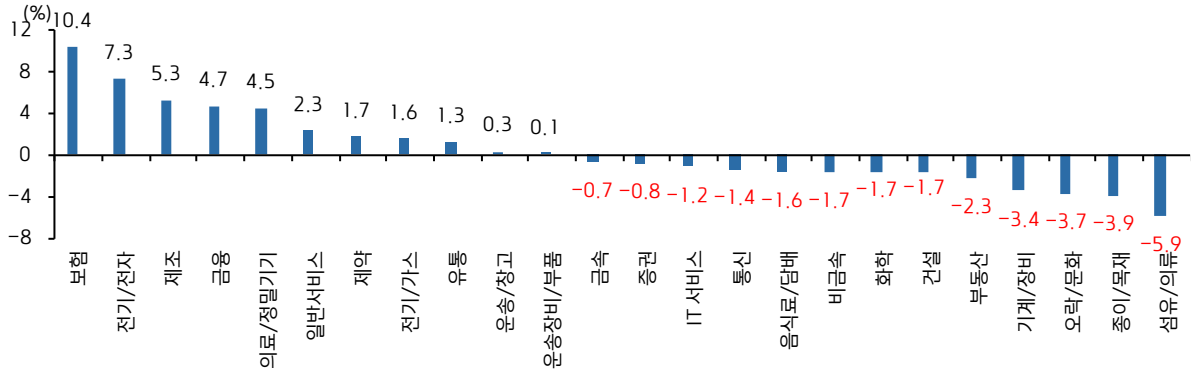
현재 국내 증시의 주도주에 대한 레버리지 ETF가 출시된다는 점은 시장의 신규 유동성이 유입되는 효과가 발생할 수 있음. 다만, 출시 이후 한동안은 장중 수급 변동성이 일시적으로 높아질 수 있음. 레버리지, 인버스 ETF 상품 특성상 일간 리밸런싱이 의무적이기에, 장 마감 동시호가에 기계적인 추종 매매 및 헤지 작업이 수반되기 때문. 어디까지나 수급 이슈이기에 증시 방향성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겠지만, 출시 이후 자금 쏠림 여파로 장 마감 동시호가 시간대에 근접할수록 수급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다는 점은 염두에 둘 필요.

국내 주식시장 주요 지수 기간별 수익률

시장	종가(pt)	기간별 수익률			
		D-1(%)	D-5(%)	D-20(%)	YTD(%)
코스피	7,847.71	0.4	4.7	22.3	86.2
대형주	8,549.05	0.2	5.2	25.0	95.3
중형주	4,900.11	2.7	0.1	0.6	31.6
소형주	2,792.66	2.9	-1.6	-4.8	10.9
코스피 200	1,226.03	0.1	5.5	27.1	102.3
코스닥	1,161.13	5.0	2.8	-1.7	25.5
대형주	2,858.63	5.8	4.3	1.0	27.0
중형주	1,195.97	4.7	1.8	-3.8	32.9
소형주	3,140.08	3.8	0.7	-4.5	22.0
코스닥 150	1,991.85	6.2	4.8	-0.3	28.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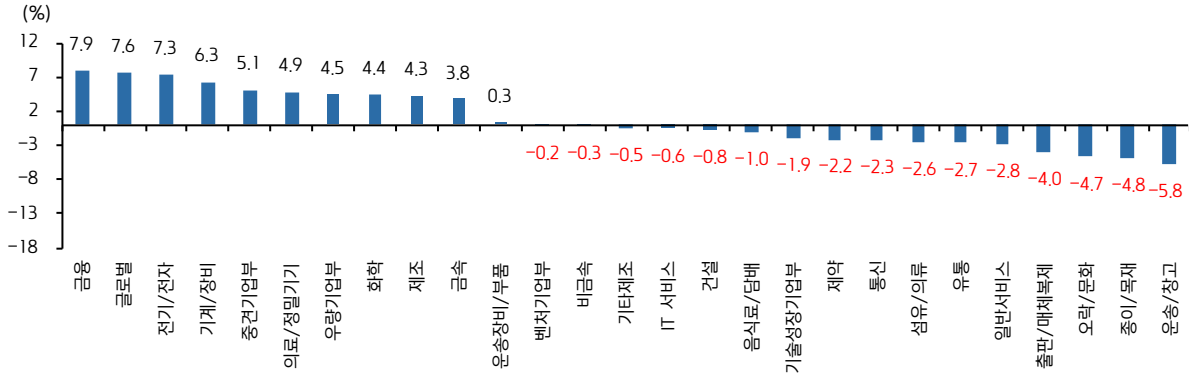
출처: FnGuide,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KOSPI 업종별 주간 등락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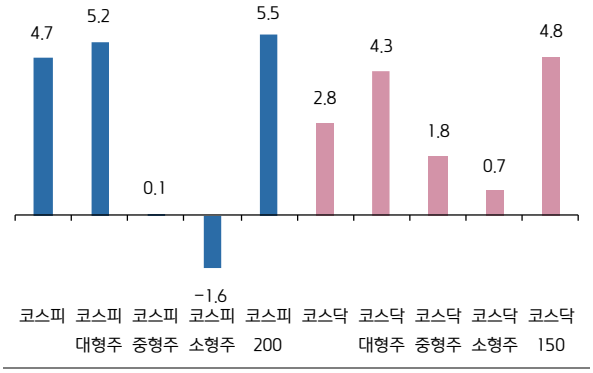
출처: Infomax,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KOSDAQ 업종별 주간 등락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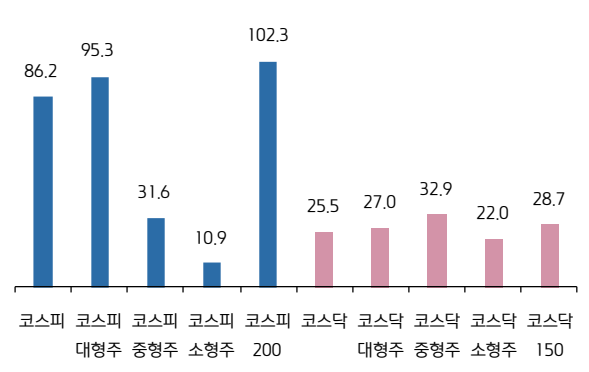
출처: Infomax,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주요 지수 주간 수익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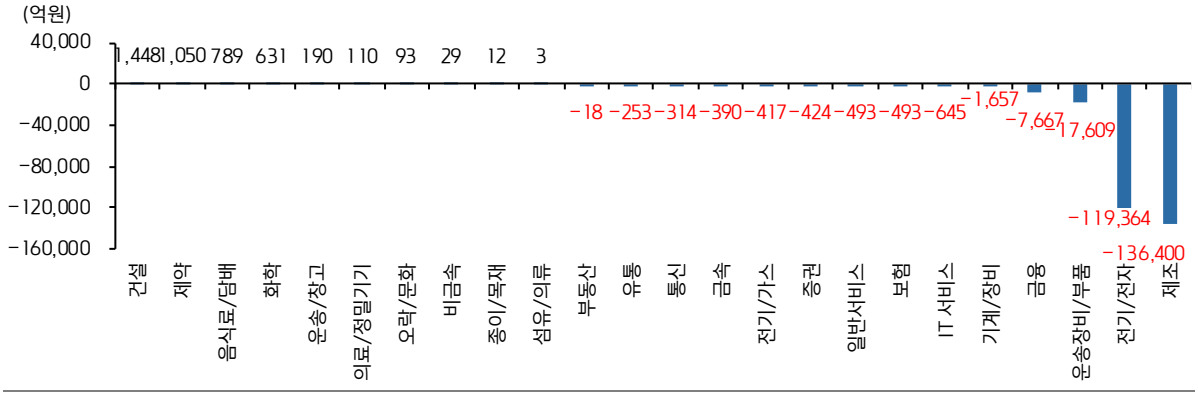
출처: FnGuide,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주요 지수 연초 대비 수익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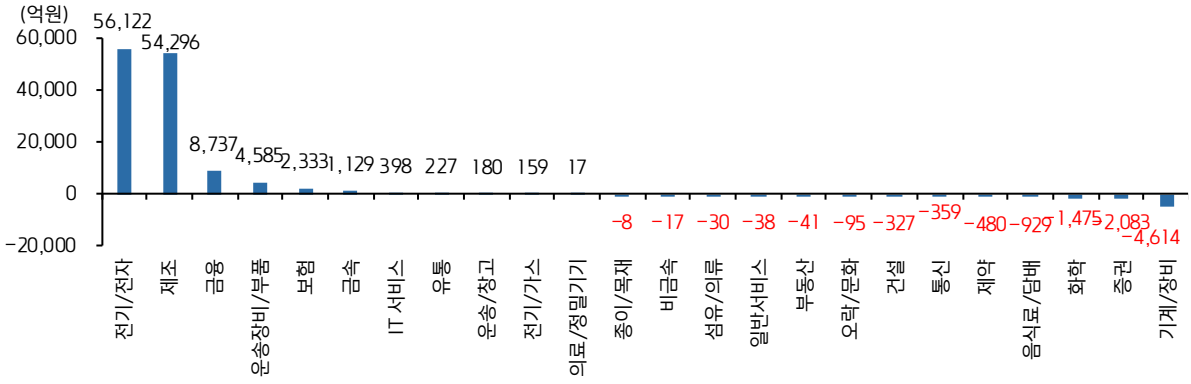
출처: FnGuide,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KOSPI 업종별 외국인 주간 누적 순매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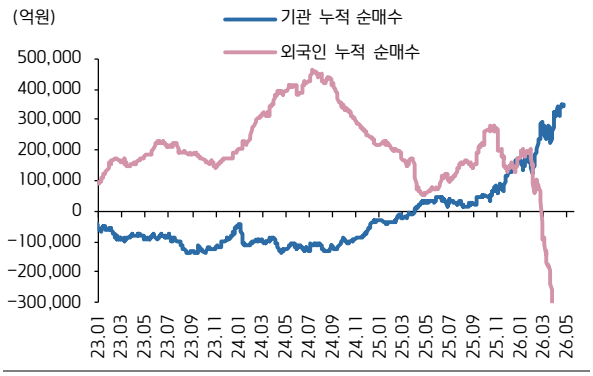
출처: Infomax,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KOSPI 업종별 기관 주간 누적 순매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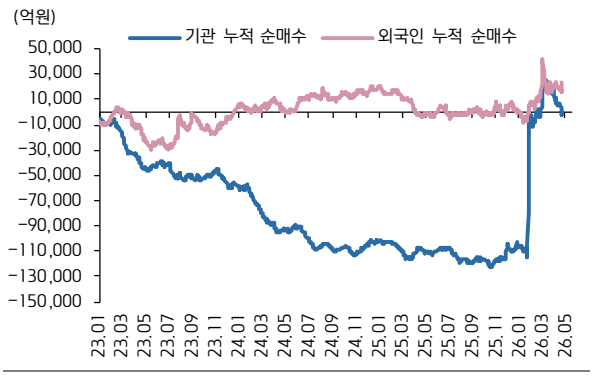
출처: Infomax,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KOSPI 기관, 외국인 누적 순매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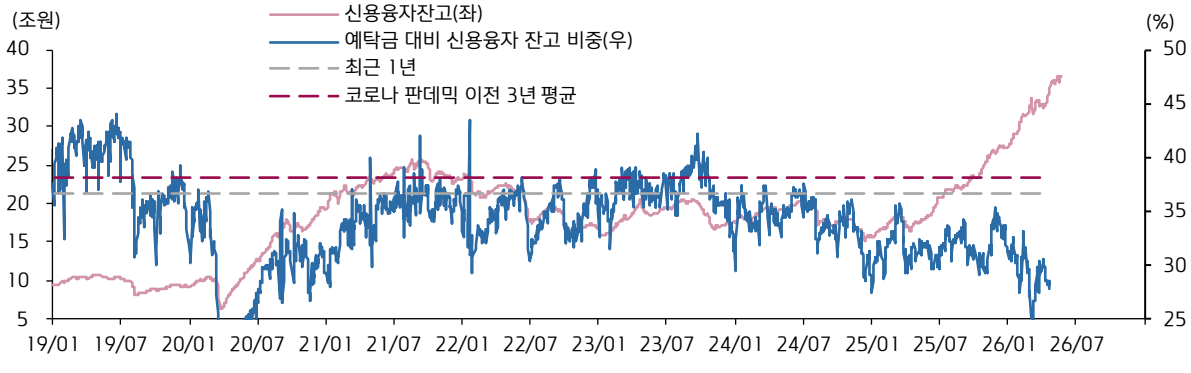
출처: FnGuide,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KOSDAQ 기관, 외국인 누적 순매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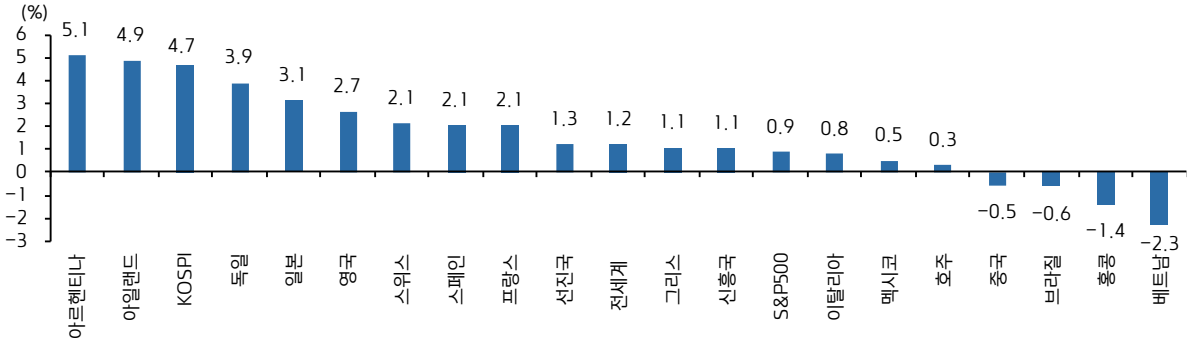
출처: FnGuide,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KOSPI+KOSDAQ 신용융자잔고 및 예탁금 대비 신용융자 잔고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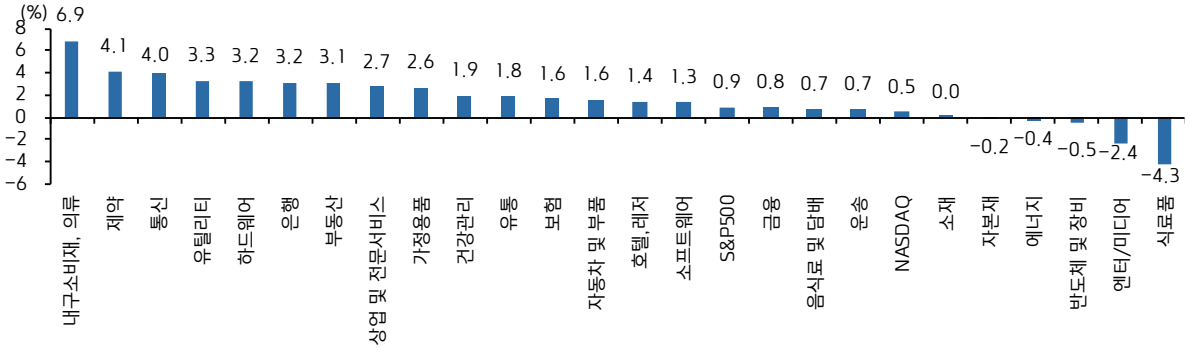
출처: FnGuide,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주요 글로벌 증시 주간 등락률



출처: Bloomberg,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미국 26개 업종별 주간 등락률



출처: Bloomberg, 키움증권 리서치센터